

'91 노동경제동향 및

'92 노사관계 전망

經濟團體協議會 / 勞使對策部 편

I. 주요 노동경제 동향

1. 경제개황

1991년 2/4분기 중 국민총생산은 과열된 건설투자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 증가율의 확대와 두 자리수의 높은 수출회복 등으로 1/4분기의 8.9%(전년동기대비)보다 높은 9.2%로 실질성장을 이루어 1991년 상반기에 9.1% 성장을 기록하였다.

경제성장의 동향을 생산면에서 살펴보면 1991년 2/4분기 중 제조업과 도소매업, 운수·창고·통신업 등의 서비스업이 견실한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건설업은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전기업은 저조하였다. 경제성장의 동향을 수요면에서 살펴보면 1991년 2/4분기 중 소비의 성장기여율이 1/4분기와 비슷한 68.1%를 보였으나 고정투자의 성장기여율이 62.6%로 낮아져 내수의 성장기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대신 수출의 성장기여율이 1/4분기의 37.3%에서 56.7%로 크게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1991년 2/4분기 중 경제성장은 제조업 생산 및 수출의 견고한 회복 등으로 경제

성장의 내용이 비교적 충실해지고 있으나 잠재성장율을 상회하는 경기과열로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및 국제수지 적자규모의 확대 등이 경제운용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1년 1~9월 중 도매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6.2%(전년말 대비 2.2%), 그리고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9.7%(전년말 대비 8.9%)로 상승하여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시현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은 농산물가격,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1991년 1~9월 중 수출(통관기준)은 전년동기에 비해 8.9% 늘어난 508.6억달러로 2/4분기의 높은 신장세가 3/4분기 이후 크게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통관기준)은 1~9월 중 전년동기에 비해 21.8% 늘어난 605.1억달러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원자재가격의 안정 및 건설경기의 진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높은 수입수요의 지속이 예상되어 수입증가세의 급격한 둔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2. 고 용

노동력공급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는 1991년 2/4분기에 19,386천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5% 증가하여 노동력공급 증가율이 낮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낮은 증가율은 '70~'80년대 장기적인 출산률 저하에 따른 인구의 항아리형 구조로의 진전·등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증가율 둔화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여성에 의한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는 지속되어 1991년 2/4분기에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은 61.9%로서 전년동기에 비해 0.4% 증가하고 있고 취업자는 1991년 2/4분기에 18,987천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6% 증가하고 실업자는 1991년 2/4분기에 400천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3% 감소한 결과 실업률은 2.1%로 완전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1.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1989	1990	1990			1991	
			2/4	3/4	4/4	1/4	2/4
경제활동인구	17,971 (3.8)	18,487 (2.9)	18,905 (2.3)	18,987 (2.8)	18,670 (2.8)	17,960 (3.3)	19,386 (2.5)
취업자	17,511 (3.8)	18,036 (3.0)	18,500 (2.6)	18,562 (2.8)	18,235 (2.8)	17,431 (3.5)	18,987 (2.6)
실업자	460 (5.7)	451 (-2.0)	405 (-8.3)	426 (1.5)	434 (1.2)	528 (-1.9)	400 (-1.3)
참가율	59.5	60.0	61.5	61.5	60.2	57.6	61.9
실업률	2.6	2.4	2.1	2.2	2.3	2.9	2.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점진적인 농림어업부문의 감소와 더불어 비농부문 내부에서도 광공업부문의 비중감소 및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부문의 비중증가라는 취업구조의 시비스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건설업 취업자의 높은 증가세의 지속, 제조업 취업자의 완만한 회복 그리고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율의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사상 지위별로 취업자의 동향을 비농 부문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도출되고 있다.

상시고는 1991년 2/4분기에는 전년동기에 비해 4.7% 증가한 9,061천명으로 1990년 2/4분기 이후 일고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데 1989년에 급격히 증가한 일고의 상시고로의 부분적인 흡수 그리고 기업의 노동조합에 대한 대응력의 증대로 그동안 유보된 상시고의 채용이 실현된 데에 기인한다.

일고는 1991년 2/4분기에는 전년동기에 비해 1.5% 감소한 1,697천명으로 1989년 4/4분기의 25.3%라는 높은 증가율을 정점으로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어 고용안정

'91 노동경제동향 및 '92 노사관계 전망

표 2.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1989	1990	1990			1991	
			2/4	3/4	4/4	1/4	2/4
임금근로자	10,354 (7.7)	10,865 (4.9)	10,892 (4.4)	10,973 (4.6)	11,070 (4.5)	11,034 (4.8)	11,279 (3.5)
상 시 고	8,635 (6.4)	9,034 (4.6)	9,003 (4.4)	9,113 (4.8)	9,184 (5.0)	9,344 (5.7)	9,438 (4.8)
일 고	1,719 (14.9)	1,831 (6.5)	1,889 (4.3)	1,860 (3.4)	1,886 (2.0)	1,690 (0.1)	1,841 (-2.5)
비임금근로자	7,157 (-1.4)	7,171 (0.2)	7,608 (0.1)	7,589 (0.4)	7,165 (0.3)	6,397 (1.2)	7,707 (1.3)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비임금근로자는 1991년 2/4분기에는 전년동기에 비해 6.4% 증가한 4,478천명으로 점차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업 제외 비농부문의 직종대분류별 취업자의 동향을 살펴보면 비생산직 취업자의 높은 증가율이 둔화되고 생산직 취업자의 증가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를 주요 직종대분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도출되고 있다.

서비스직 및 판매직은 1991년 2/4분기에는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5.5%, 3.7% 증가한 2,113천명, 2,695천명으로 민간소비증가율의 확대에 따라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생산직은 1991년 2/4분기에는 전년동기에 비해 4.2% 증가한 6,464천명으로 최근 제조업 활성화대책의 영향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 1년간 낮았던 생산직의 증가율은 건설업의 호황으로 건설업에서의 생산직은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에서의 생산직은 오히려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미미한 증가에 그쳤으나 최근

생산직의 60% 이상을 구성하는 제조업의 성장회복에 의하여 건설한 회복세를 다시 보이고 있다.

전문·기술 및 행정·관리직, 사무직은 1991년 2/4분기에는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9.2%, 4.1%의 높은 증가율은 유지하고 있다.

상용근로자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남자근로자의 감소현상의 시작되고 여자근로자의 감소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첫째, 남자근로자는 1991년 2/4분기에는 전년동기에 비해 1/1% 감소한 3,132천명으로 1991년 1/4분기 이후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여자근로자는 1991년 2/4분기에는 전년동기에 비해 4.4% 감소한 1,464천명으로 1989년 2/4분기 이후 감소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임금 및 근로조건이 보다 양호한 상용근로자에 있어서 여자구성비는 보다 낮아지고 있다.

상용근로자의 최근 동향을 근로자종류별로 살펴보면 생산직 근로자의 감소현상이 심화되고 관리·사무·기술직 근로자의 증가현상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생산직근로자는 1991년 2/4분기에는 전년동기에 비해 8.0% 감소한 1,899천명으로 1989년 이후 감소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관리·사무·기술직근로자는 1991년 2/4분기에는 전년동기에 비해 2.4% 증가한 2,697천명으로 증가현상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상용근로자의 최근 동향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광공업부문의 근로자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비하여 사회간접자본부문은 최근 건설경기의 호황 지속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타 서비스업부문은 사회간접자본부문보다 증가율이 낮으나 사용근로자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사업체규모별로 상용근로자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도출되고 있다.

10~29인 규모에서도 1991년 2/4분기 이후 상용근로자의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상용근로자의 감소시기가 빨리 나타나고 있으며 끝으로, 1991년 2/4분기에는 전년동기에 비해 10~29인 규모 0.8%, 30~99인 규모 2.4%, 100~299인 규모 2.8%, 300~499인 규모 1.6% 그리고 500인 이상 규모 2.3%의 감소로 모든 규모에서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 임 금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체의 금년 2/4분기 전산업(비농) 명목임금은 714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0% 상승하였는데 이는 1/4분기에 비하여 2.2% 높은 것으로, 본격적인 임금교섭의 결과가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도시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동기대비 9.1% 상승하였음에도 실질임금은 8.2%로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편 '91년 2/4분기 노동생산성도 1990년 이후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어 물적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2.2%, 부가가치 노동생산성(불변가격기준) 증가율은 13.6%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1년 6월말 타결임금 인상률은 10.2%를 기록하고 있어 명목임금 상승률과의 격차가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수당의 신설 및 증액과 특별급여 증액등의 수단으로 지불임금의 총액을 상승시키면서도 정부에 보고하고 있는 통상임금기준의 타결임금인상률은 한 자리수로 조정하는 노조의 임금협상 방법이 크게 변하고 있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내역별 임금상승률 추이에서 잘 보여지는데,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기타 수당으로 구성되는 정액급여는 '91년 2/4분기에 506천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17.0% 상승하여 '90년 2/4분기 이후 비슷한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일·숙직수당등으로 구성되는 초과급여는 75천원으로 11.2% 증가하여 1989년 2/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간의 꾸준한 임금상승과 인력부족상황 속에서 인건비부담이 급증하여 사용자들이 초과근로를 가급적 억제하고 근로자들도 초과근로를 기피하여 온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91년 2/4분기의 임금추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근로자의 경우 836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7% 상승하였으며, 여자근로자의 경우는 453천원으로서 20.0%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남자근로자에 비한 여자근로자의 높은 임금상승률은 금년에도 지속되

고 있는데, 이에 따라 남자근로자 임금은 100으로 한 여자근로자의 임금비율은 54.2로서 1987년 이후 성별 임금격차는 꾸준히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적용추세가 늘어나는 일면, 그간의 인력부족이 여자의 주된 취업원인 생산직 및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심하여 이 분야의 임금상승률이 더 높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여자근로자들이 학력·경력·근속년수 등에서 남자근로자들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성별임금 격차의 개선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91년 2/4분기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등에서 임금상승률이 20% 전후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융·보험 및 사업, 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1/4분기 이어 계속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제조업의 '91년 2/4분기 임금은 655천원으로 '90년 같은 기간의 554천원에 비해 18.2%가 상승하여 1987년 이후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제조업의 임금이 타산업에 비해 낮다는 것과 제조업의 경우 임금통계에 잡히는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구성에서 임금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직 비중이 높다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91년 2/4분기의 기업규모별 전년동기비 임금상승률 추이를 보면 종업원 100~299인의 중규모기업과 50인 이상의 대기업의 임금상승률이 각각 23.0%, 20.6%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0~29인 규모의 영세기업의 임금상승률은 16.3%, 30~99인 규모에서는 9.3%를 기록하고 있어 규모간 임금격차는 확대추세가 예년만큼 급격하지

는 않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업원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상대임금의 저하가 두드러져,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10~29인 규모는 '90년 2/4분기의 72.1%에서 '91년 2/4분기에는 69.5로, 30~99인 규모는 75.0에서 74.2로 감소하였다. 대규모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중·소 규모사업장보다 높아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는 1987년 이후 지속되어 온 것인데 기업의 지불능력, 노조의 교섭력 등이 기업규모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전년동기에 비하여 0.4% 감소한 183.5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축추세는 예년에 비하여는 완만한 것이다. 그러나 초과근로시간은 지난해 3/4분기 이후의 경기회복세를 반영하여 1990년 하반기에 증가추세를 보여왔고 '91년 1/4분기에도 미미한 감소폭을 기록했었으나 2/4분기에는 26.9시간으로 3.9%나 감소하였다. 이는 그간의 높은 임금상승으로 사용자들이 할증임금까지 추가지급해야 하는 초과근로를 가급적 정상근로로 대체하여 나가고 근로자들도 초과근로를 기피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일수는 금년 2/4분기에도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인 25.0일을 기록하여 3년간 증감이 없다.

'91년 2/4분기 근로시간의 동향을 산업대분류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있거나 미미한 증가에 그치고 있음에 비해 광업에서만은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는 1.1%의 감소율을 기록하여 감소율이 가장 크나 근로시간은 가장 긴 217.1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나머지 산업에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0.8%), 건설업(-0.5%),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0.2%)의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있고, 기타 산업은 미미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광업의 경우는 그간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석탄산업의 사양화를 반영하여 근로시간이 급속히 단축되어 왔지만 '91년 1/4분기 이후에는 오히려 근로시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자동화가 어려운 광업에서 광부의 부족을 기존근로자의 근로시간 연장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91년 2/4분기 근로시간 추이를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중규모 및 대기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현저하나 30인 이하 소규모 기업에서는 1/4분기에 이어 오히려 근로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즉 종업원 100~299인 규모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12.1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 감소했으며 300~499인, 500인 이상 규모에서는 각각 214.8시간, 209.8시간으로 모두 1.7%씩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30~99인 규모에서는 0.1% 감소한 210.5시간, 10~29인 규모에서는 오히려 2.0% 증가한 207.4시간을 기록하고 있어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시간 단축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규모가 클수록 근로시간의 단축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대규모 기업일수록 임금상승이 높고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등으로 사용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근로자들도 초과근로를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규모 기업에서의 근로시간 증가는 심각한 인

력부족을 기존근로자의 연장근로로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II. '92년 노사관계전망 및 쟁점조사

1. 전망조사 사항

(1) 노사관계 전망

노사분규의 발생과 노사교섭의 신속성, 효율성등을 중심으로 '91년과 비교해 '92년 노사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전체응답기업의 42.1%가 “올해보다 안정될 것이다”라고 응답했고 28.7%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올해보다 불안해질 것이다”하는 응답은 29.2%로 집계되어 전체 70.8%의 기업이 '92년 노사관계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욱 안정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비제조업의 경우 노사안정에 대한 낙관론이 58.3%,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라는 견해가 12.5%로 나타나 제조업의 39.5%와 31.3%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년도 노사관계를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규모별로 볼 때 “작년보다 안정될 것이다”라는 견해는 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는 반면 “작년보다 불안해질 것이다”라는 견해는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져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를 보면 '92년의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다라는 응답보다 불안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더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91 노동경제동향 및 '92 노사관계 전망

표 3. 금년 노사관계 전망

업종별 동향

(단위 : %)

구 분	올해보다 안정될 것이다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올해보다 불안해질 것이다	계
제조업	39.5	31.3	29.3	100.0
비제조업	58.3	12.5	29.2	100.0
평균	42.1	28.7	29.2	100.0

규모별 동향

(단위 : %)

구 분	올해보다 안정될 것이다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올해보다 불안해질 것이다	계
299인 이하	45.1	30.8	24.2	100.0
300~499인 이하	39.1	34.8	26.1	100.0
500~999인 이하	39.1	30.4	30.4	100.0
1,000인 이상	38.2	17.6	44.1	100.0
평균	42.1	28.7	29.2	100.0

* 응답업체수 : 1. 제조업 : 221, 비제조업 : 36

2. 299인 이하 : 136, 499인 이하 : 35, 999인 이하 : 35, 1,000인 이상 : 51

(2) 금년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으로 보는 이유

'92년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안정될 것이라 보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설문에 대해 전체 응답기업의 43.7%가 “노사간의 교섭기술,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으로 응답했고 32.4%가 “경영여건의 악화에 따른 노조요구의 자제”, 18.3

%가 “그간 임금의 고율인상 등 노사간 갈등요인이 크게 해소되었기 때문”, 5.6%가 “노조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의 전환”을 노사관계 안정이유로 지적하고 있어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교섭의 경험과 기술의 축적이라는 장기안정기반과 노사협력 관행을 구축해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가능케 해주고 있다.

'91 노동경제동향 및 '92 노사관계 전망

표 4. 금년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으로 보는 이유

업종별 동향

(단위 : %)

구 분	노사간 교섭 기술, 경험 축적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노조요구 자제	노조의 존재 와 역할에 대한 사용자 인식 전환	고임인상 등 노사 갈등요인 해소	기 타	계
제 조 업	47.4	29.8	5.3	17.5	-	100.0
비 제 조 업	28.6	42.9	7.1	21.4	-	100.0
평 균	43.7	32.4	5.6	18.3	-	100.0

규모별 동향

(단위 : %)

구 분	노사간 교섭 기술, 경험 축적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노조요구 자제	노조의 존재 와 역할에 대한 사용자 인식 전환	고임인상 등 노사 갈등요인 해소	기 타	계
299인 이하	45.6	28.3	4.3	21.7	-	100.0
300~499인 이하	44.4	33.3	-	22.2	-	100.0
500~999인 이하	22.2	55.6	22.2	-	-	100.0
1,000인 이상	57.1	28.6	-	14.3	-	100.0
평 균	43.7	32.4	5.6	18.3	-	100.0

* 응답업체수 : 1. 제조업 : 86, 비제조업 : 21

2. 299인 이하 : 62, 499인 이하 : 14, 99인 이하 : 14, 1,000인 이상 : 17

(3) 금년 노사관계가 불안해 질 것으로 보는 이유

'92년도 노사관계가 불안해 질 것으로 보는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설문 에 대해서 56.0%가 “물가불안에 따른 노 조의 무리한 요구”를 들었고 30.0%가 총 선등 선거 과정에서 공권력의 공백현상 발 생, 8.0%가 “구속근로자의 석방과 강성노 조집행부의 대두”, 6.0%가 노사간의 불성 실한 교섭자세를 지적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이 '92년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물가불안에 따른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규모별로 보면 규 모가 작을수록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물 가불안에 따른 노조의 무리한 요구”이유의 비중이 높고, 규모가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총선등 선거과정에서 공권력의 공백현상 이 발생”되어 노사관계가 불안해 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금년 노사관계를 불안할 것으로 보는 이유

업종별 동향

(단위 : %)

구 분	물가불안에 따른 노조의 무리한 요구	구속근로자의 석방과 강성노조 집행부	총선 등 공권력의 공백 현상	노사간 불성실한 교섭 자세	기 타	계
제조업	54.5	9.1	29.5	6.8	-	100.0
비제조업	66.7	-	33.3	-	-	100.0
평균	56.0	8.0	30.0	6.0	-	100.0

규모별 동향

구 분	물가불안에 따른 노조의 무리한 요구	구속근로자의 석방과 강성노조 집행부	총선 등 공권력의 공백 현상	노사간 불성실한 교섭 자세	기 타	계
299인 이하	66.7	-	20.8	12.5	-	100.0
300~499인 이하	42.9	14.3	42.9	-	-	100.0
500~999인 이하	66.7	-	33.3	-	-	100.0
1,000인 이상	38.5	23.1	38.5	-	-	100.0
평균	56.0	8.0	30.0	6.0	-	100.0

* 응답업체수 : 1. 제조업 : 66, 비제조업 : 9

2. 299인 이하 : 33, 499인 이하 : 9, 999인 이하 : 11, 1,000인 이하 : 22

(4) 금년 노사관계에 있어서 임금인상 이외의 최대 경험

금년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임금인상을 제외하고 최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는 이슈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기업의 27.2%가 “사내복지 기금의 설치 등 복리후생의 확충”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고 19.3%가 “인사, 경영권 참여문제”, 12.6%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당 임금계산 문제”, 12.6%가 “휴일, 휴가 증대 또는 축소”, 10.8%가 “노조대표

권 시비”, 7.0%가 “전임자수 증대 또는 축소 등 노조활동보장문제, 5.0%가 “산업재해예방과 보상”, 2.9%가 “파업기간중 임금부지급문제”, 2.6%가 “해고자 복직”을 지적하였다.

즉 교섭질서와 교섭대상에 대한 노사인식의 개선으로 주쟁점이 무노동, 무임금, 대표권시비, 해고자 복직등에서 벗어나 기업내 복지후생으로 이전, 집약되는 등 노동운동의 실리추구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업종별로 이와 같은 양상에는 큰 차이가

'91 노동경제동향 및 '92 노사관계 전망

없지만 규모별로는 규모가 커질수록 “인사, 경영권 참여문제”를 예상쟁점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하였고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는 노사관계에 있어 최대쟁점은 “인사, 경영권 참여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표 6. 금년 노사관계에 있어서 임금인상외에 최대쟁점

업종별 동향

(단위 : %)

구 분	노조대표비	인사권참여	파견임부지급	업종중금	해고자지급	사복기복후	내지동리생	산예방과상	재과상	전자중대노활	임수동조동	근시단파임계	로간에큰금산	휴휴중또축	일가대는소	계
제조업	11.2	19.0	2.0	2.7	26.2	5.4	7.5	12.9	12.9	100.0						
비제조업	8.3	20.8	8.3	2.1	33.3	2.1	4.2	10.4	10.4	100.0						
평균	10.8	19.3	2.9	2.6	27.2	5.0	7.0	12.6	12.6	100.0						

규모별 동향

(단위 : %)

구 분	노조대표비	인사권참여	파견임부지급	업종중금	해고자지급	사복기복후	내지동리생	산예방과상	재과상	전자중대노활	임수동조동	근시단파임계	로간에큰금산	휴휴중또축	일가대는소	계
299인 이하	9.9	14.9	2.8	0.5	27.6	4.4	5.5	19.3	14.9	100.0						
300~499인 이하	13.0	15.2	-	4.3	32.6	8.7	13.0	4.3	8.7	100.0						
500~999인 이하	10.4	20.8	6.3	-	27.1	6.3	10.4	8.3	10.4	100.0						
1,000인 이상	11.9	32.8	3.0	9.0	22.3	3.0	4.5	3.0	10.4	100.0						
평균	10.8	19.3	2.9	2.6	27.2	5.0	7.0	12.6	12.6	100.0						

* 응답업체수 : 1. 제조업 : 441, 비제조업 : 72
 (2문항선택) 2. 299인 이하 : 272, 499인 이하 : 69, 999인 이하 : 72,
 1,000인 이하 : 100

'91 노동경제동향 및 '92 노사관계 전망

(5) 근로의욕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

최근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근로의욕저하 문제와 관련, 근로의욕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우리기업의 37.4%가 “원가 절감, 매출신장에 따른 인센티브 상여제 도입”을 지적하였고 26.3%가 “주택자금 등 근로복지 혜택의 확대”, 14.5%가 “산재예방 및 작업공간 확대 등 작업환경개선” 14.0%가 “생산직 직급체제 개선을 통한 장기근속자 처우 향상”, 6.1%가 “제안 제

도 등 경영참가제도 도입”, 1.7%가 “체육, 문화, 오락, 휴게 등 후생시설의 확충”을 지적하여 근로의욕 활성화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 규모별로 특별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근로의욕 활성화를 위해 “산재예방 및 작업공간 확대 등 작업환경개선”과 “제안제도 등 경영참가제도 도입”등을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근로의욕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과제

업종별 동향

(단위 : %)

구 분	인센티브 상여제 도입	작업환경 개선	주택자금 등 복지혜택	장기근속자 처우 향상	체육, 오락 등 후생시설 확충	제안제도 등 경영참가제도 도입	계
제조업	36.1	15.5	25.8	14.8	1.9	5.8	100.0
비제조업	45.8	8.3	29.1	8.3	-	8.3	100.0
평균	37.4	14.5	26.3	14.0	1.7	6.1	100.0

규모별 동향

(단위 : %)

구 분	인센티브 상여제 도입	작업환경 개선	주택자금 등 복지혜택	장기근속자 처우 향상	체육, 오락 등 후생시설 확충	제안제도 등 경영참가제도 도입	계
299인 이하	36.5	14.4	26.0	15.4	1.9	5.8	100.0
300~499인 이하	41.7	16.7	25.0	12.5	-	4.2	100.0
500~999인 이하	37.5	4.2	37.5	12.5	-	8.3	100.0
1,000인 이상	37.0	22.2	18.5	11.1	3.7	7.4	100.0
평균	37.4	14.5	26.3	14.0	1.7	6.1	100.0

* 응답업체수 : 1. 제조업 : 223, 비제조업 : 36

2. 299인 이하 : 136, 499인 이하 : 36, 999인 이하 : 36, 1,000인 이상 : 51

(6) 금년 노사분규 예방을 위한 대책

금년도 노사분규 예방을 위해 각 기업의 가장 큰 역점을 두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묻는 설문에 대해 전체응답업체중 22.9%가 “의식개혁을 위한 연수, 교육, 행사의 강화”를 지적하였고 20.1%가 “직급체계, 임금체계 등 노무제도의 합리화”, 19.0%가 “고충상담 등 인간관계의 개선”, 16.2%가 “경영계획 및 경영실적의 공개”, 14%가 “복리후생 혜택과 시설의 확충”, 6.7%

가 “라인 중심의 노무관리체계 강화”, 1.1%가 “각종 제안제도의 설치등 조직개발”을 지적하여 노사분규예방을 위해서 연수, 교육, 행사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볼 때 규모가 클수록 노사분규 예방책으로 “의식개혁을 위한 연수, 교육, 행사의 강화”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직급체계, 임금체계 등 노무제도의 합리화”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표 8. 신년도 노사분규 예방을 위한 대책

업종별 동향

(단위 : %)

구 분	경영계획 및 실적 공개	연 교 수 육	제 반 제도 등 조직개발	임 금 체 계 등 노 무 제 도 합 리 화	복 리 후 생 설 치 설 회 택 시 설 확 충	고 충 상 담 등 인 간 관 계 개 선	라 인 중 심 의 노 무 관 리 체 계 강 화	계
제 조 업	16.1	24.5	1.3	20.0	14.8	17.4	5.8	100.0
비 제 조 업	16.7	12.5	-	20.8	8.3	29.2	12.5	100.0
평 균	16.2	22.9	1.1	20.1	14.0	19.0	6.7	100.0

규모별

(단위 : %)

구 분	경영계획 및 실적 공개	연 교 수 육	제 반 제도 등 조직개발	임 금 체 계 등 노 무 제 도 합 리 화	복 리 후 생 설 치 설 회 택 시 설 확 충	고 충 상 담 등 인 간 관 계 개 선	라 인 중 심 의 노 무 관 리 체 계 강 화	계
299인 이하	18.3	11.8	1.1	24.7	18.3	22.6	3.2	100.0
300~499인 이하	21.7	30.4	-	17.4	8.7	13.0	8.7	100.0
500~999인 이하	13.0	34.8	-	17.4	8.7	21.7	4.3	100.0
1,000인 이상	10.0	37.5	2.5	12.5	10.0	12.5	15.0	100.0
평 균	16.2	22.9	1.1	20.1	14.0	19.0	6.7	100.0

* 응답자수 : 1. 제조업 : 223, 비제조업 : 36

2. 299인 이하 : 136, 499인 이하 : 36, 999인 이하 : 36, 1,000인 이상 : 51

'91 노동경제동향 및 '92 노사관계 전망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비 제조업의 경우 “고충상담 등 인간관계의 개선”을 노사분규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제일 많이 지적하고 있어 제조업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7) 금년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동조합에 요망되는 사항

금년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조합에

요망되는 사항을 묻는 설문에 대해 전체 응답업체중 29.7%가 “건전한 노동운동이념의 확립과 노사협조적 자세의 확립”을 지적하였고 26.8%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26.5%가 “무리한 요구의 자제”, 11.7%가 “노조 집행부의 대표권 확립등 리더쉽 향상”, 5.2%가 “외부세력의 배제”를 지적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노조집행

표 9. 신년도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조에 요망되는 사항

업종별 동향

(단위 : %)

구 분	무리한 요구 자제	외부 세력의 배제	대표권 확립 등 리더쉽 향상	건전한 노동 운동이념 확립 등 협조적 자세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계
제조업	26.1	5.8	12.5	29.8	25.8	100.0
비제조업	29.1	2.1	6.3	29.2	33.3	100.0
평균	26.5	5.2	11.7	29.7	26.8	100.0

규모별 동향

(단위 : %)

구 분	무리한 요구 자제	외부 세력의 배제	대표권 확립 등 리더쉽 향상	건전한 노동 운동이념 확립 등 협조적 자세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계
299인 이하	29.3	5.4	9.8	26.6	28.8	100.0
300~499인 이하	17.4	4.3	8.7	30.4	39.1	100.0
500~999인 이하	26.1	6.5	15.2	30.4	21.7	100.0
1,000인 이상	25.3	4.5	16.4	37.3	16.4	100.0
평균	26.5	5.2	11.7	29.7	26.8	100.0

* 응답업체수 : 1. 제조업 : 440, 비제조업 : 70

(2문항 선택) : 2. 299인 이하 : 272, 499인 이하 : 69, 999인 이하 : 69, 1,000인 이상 : 100

부의 대표권 확립등 리더쉽 향상”과 “외부 세력의 배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요망하고 있으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오히려 비제조업에서 제조업보다 더 많이 요망하고 있어 비제조업 사무, 관리직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 절실한 실정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규모별로 보면 규모가

커질수록 “노조집행부의 대표권확립등 리더쉽 향상”, “건전한 노동운동 이념의 확립과 노사협조적 자세의 확립”을 상대적으로 많이 노조에 요망하고 있으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규모가 작을수록 더 요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첨가물공전 판매안내

본회는 최근 개정 고시된 식품첨가물공전을 한정판으로 발행,
판매중에 있어오니 아래의 요령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판매가격 : 권당 20,000원
- 판매장소 : 한국식품공업협회 소비자상담실
(585-5052, 5053, 554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02-6

*지방에서 우편구입시에는 우체국발행 소액환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